

프로폴리스의 위력

(피를 맑게 하면 만병을 다스린다)

-위염, 암, 류마티스, 요통, 생리통, 간경화등-

-지난호 이어서-

두리연 대표 김 해 용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2) 프로폴리스에도 부작용이 있다.

프로폴리스 책자에는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표현하고 있다. 효력에 비하면 부작용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는지? 아니면 몰라서인지도 모르겠다.

모든 물질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부작용도 옹당 따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을 잘 활용할 때 효력을 더 높일 수 있다. 6년 전에 봉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양봉가가 자신은 수술 뒤에 프로폴리스를 먹고 빠른 효과를 얻었다고 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5년전 집 아이가 방학 때 몇몇 중학생들과 함께 포경수술을 했다. 우리집 아이에게 빨리 상처가 아물기를 바래서 프로폴리스를 먹였다. 그런데 상처가 아물지는 않고 화농까지 되어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우리 가족은 오래전부터 현미식을 해왔기 때문에 다른 집 아이들보다 저항력이 강하여 빨리 나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 원인은 프로폴리스에 있다고 보고, 프로폴리스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다. 프로폴리스에는 항생 성분과 몇 가지의 효소 성분이 들어있어서 포도상구균, 연쇄구균, 대장균 등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프로폴리스에는 지혈 작용과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까지 있다고 발표되어 있지만, 지혈작용보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Bioflavonoid) 성분이 다량 들어 있다. 이 성분은 비타민 P와 같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잇꽃이나 달맞이꽃 등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식물에는 거의 다 들어 있다. 수술 뒤에 항생제 역할만을 생각하고 먹었던 것이 지혈이 안되어 상처에 화농이 된 것이다. 코피를 잘 흘리는 사람에게 프로폴리스를 주면 코피를 더 잘 흘리게 되고, 생리가 있는 사람에게 주면 다음 날 양이 더 많아진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함부로 사용할 때는 부작용이 올 수 있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해서 오는 질환에 적용시키면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

3) 식물은 왜 수지(樹脂)를 내는가

프로폴리스를 생각하기 전에 프로폴리스의 원료 물질이 되는 수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벌이 봉독을 갖고 있는 것은 천적을 죽이거나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비상시에 사용할 때는 곤충들에게는 살상의 무기요, 사람에게서는 통증과 두드러기를 가져다준다. 벌침의 독을 공격형 물질이라고 표현한다면 수지는 살균과 자가치유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방어 물질인 진액이 없다면 바이러스와 곰팡이의 침입을 받아 곧 썩게 된다. 항생작용으로 이것을 막아주고 상처에 의해 손상된 관다발(영양 공급관 :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을 복구시키는 데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물주는 식물의 자생을 위해서 이러한 물질을 갖게 만든 것이다. 영충이라고 하는 벌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양한 식물에서 다양한 진액(식물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있음)을 갖고 와서 거기에 타액, 밀랍, 꽃가루 등을 첨가시켜 진액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놓은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이 프로폴리스는 1970년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물질이다.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식물이 내어 놓은 진액에 벌의 지혜와 노력, 거기에 벌의 분비물까지 첨가시킨 프로폴리스는 암, 간경화,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임상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고, 근래에 와서는 AIDS까지 효과가 있다는 발표도 있다.

이러한 프로폴리스에 부작용이 조금도 없다면 도리어 이상하다. 그러나 항생제나 합성 약제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과는 다르다. 항생제나 해열제를 먹으면 입이 타면서 물을 찾게 된다. 이것은 간장에 독이 될 수 있는 약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로써 희석시켜 독소를 제거시켜 달라는 구원의 요청이다. 이때 물을 공급시켜 주지 않으면 간은 해를 입게 된다. 프로폴리스는 과용해도 간에는 무리가 없고, 도리어 GOT, GPT의 수치를 떨어뜨려 주는 역할을 한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는 지방분해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장복하였을 때는 살을 빠지게 한다. 또한 굳은 간의 지방까지도 분해시킨다.

4) 프로폴리스는 국내산이 최고

양봉계 8월호에 번역된 미조쿠찌 치과의사가 일본에서는 프로폴리스 생산이 잘 안되며 효과가 없고, 야생적이고 공격적인 브라질 벌이 채취한 프로폴리스만이 효과가 있다고 한 것은, 이 분이 양봉가가 아니기 때문에 채취과정을 잘 모르고 있고, 일부 수입업자의 농간에 이끌려 본의 아니게 그러한 글을 썼을 것으로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국내 수입업자들 가운데도 국내산 프로폴리스는 효력이 없고, 브라질산이 효력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필자는 좁은 식견밖에 없지만 이것을 반박하려고 한다.

프로폴리스의 원료 생산은 식물에 있고, 식물의 원료는 토양이다. 토양과 기후에 따라서는 같은 식물이라도 성분이 다를 수 있다. 좋은 토양이라고 하면 유기질 함량이 4%이상이고, 다양한 무기질을 갖고 있는 토양이 좋은 토양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작지는 화학 비료와 농약의 남용으로 많이 나빠져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좋은 토양이다.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에 속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토양이 좋기 때문에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써 인삼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고, 그 외의 농산물도 우수품에 속한다.



다년생 식물에서 생산되는 것은 사시사철 같은 기온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4계절이 뚜렷한 곳에서 생산되는 것이 더 좋고, 겨울이 다소 추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좋다. 25년간 꽃가루를 취급해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남부지역에서 생산한 것보다 강원도 산이 효력이 더 좋았다. 나무에 비해서 수량이 많은 것보다는 적게 열리는 꽃수술에서 채취한 꽃가루가 더 효력이 있었다. 1~2개월 사이에 갑자기 커지는 무우보다는 1년에 조금씩 굵어지는 인삼이 건강에 더욱 좋은 것과 같은 것이다.

같은 크기의 나무에서 수백g 생산되는 것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대량으로 생산될 때는 특수 성분인 미량 영양소는 떨어지게 된다. 이것을 노동력에 적용시켜도 같은 원리다. 한 사람이 하루에 10벌 만든 옷과 한 벌 만든 옷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프로폴리스의 생산 원리도 이와 같다.

국내산 프로폴리스는 별 한 통에서 일년 내내 모아 보았자 몇 사람 쓸 것이 나오지 않지만, 브라질에서는 100명 이상 쓸 것이 생산된다.

그런데 브라질산이 좋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나 동물도 자기가 사는 고장에서 생산된 것이 자신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야자수를 열대지방 사람에게서는 좋아도 온대지방 사람에게서는 별로다. 여름에 생산되는 수박은 여름에 좋은 식품이다.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하므로 덜 좋다. 겨울에는 몸에 열을 낼 수 있는 근채류가 좋다.

이것은 마치 80년도 중반에 꽃가루 붐이 일어날 때 있었던 한 사건과 너무나 비슷하다. 이 때 서울대학교 약학과 김OO교수는 “꽃가루 껍질에는 알레르기 독소가 있어 이것을 벗기지 않고 먹을 경우 진신 알레르기 증상과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킨다”는 발표를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번 발표해왔다. 권위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의 말이다 보니 모든 국민은 믿게 되고, 건강식에 관해서 글을 쓰는 사람마다 꽃가루에 대해서는 김교수의 글을 인용하였다. 여기에 부응하여 꽃가루 제품을 수입한 약품회사에서는 꽃가루는 껍질 벗긴 작기 회사 제품만이 온전한 제품이라고 선전해 왔다. 찌웃 종류의 껍질은 벗길 수 있어도 꽃가루 껍질은 벗길 수 없다. 꽃가루 입자의 크기는 보통 30~50미크론(1000분의 1mm)이고, 큰 것이 100~200미크론이다. 이것은 눈에 들어가도 표가 나지 않는 가는 먼지 정도의 굵기이다. 이것이 수십 만개의 입자가 모였을 때 성냥알 크기가 된다.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여도 먼지 크기 입자의 껍질을 인위적으로 벗길 수는 없다. 만일 화학 약품을 이용하여 벗긴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이 더욱 클 수 있다. 꽃가루 껍질로 인해 이것을 선전한 제품회사에서는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1990년도 꽃가루 수입액이 644만불이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원가가 45억원, 작년부턴 수입 자유화가 되고 나서는 수입이 급격히 더 늘어났다. 프로폴리스에도 꽃가루 같은 상술이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5) 10년 뒤에는 프로폴리스 시대가 온다.

10년 뒤에 프로폴리스 시대가 온다고 한 것은 국내에서 특정인에게 알려진 뒤에도 빛을 보기까지는 보통 20년이 경과했다. 그렇지만 로얄제리가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지기까지 거의 30년이 걸렸던 것은 매스컴의 보급이 덜 된 시대였기 때문이다. 꽃가루는 20년,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알로에도 20년이 경과했다. 그러나 실지 이것보다 더 효력이 있는 것이 프로폴리스이다. 체질에 따라 쓰는 방법이 다르지만... 프로폴리스가 국내에 알려진 것은 7~8년에 불과하고,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빠르면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은 경과해야 될 것이다. 꽃가루가 제약회사에서는 오래전에 제조허가가 나왔지만, 건강식품으로 허가가 나온 것은 90년도부터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 20년만에 건강식품으로써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이 분야에 특별히 연구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권을 주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발생으로 붐이 일어났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한다. 유도한다는 것은 식품 공정에 기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이 없는 것을 갖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다. 프로폴리스가 외국에서는 제약 허가만이 아니고 건강식품으로도 허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수입되고 있다. 이것이 국내에서 큰 붐을 일으켜 놓으면 5년,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허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수입업자들은 브라질산이 최고라고 선전하면서 한 병이라도 더 판매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입업자는 원가에 몇 배를 가산시켜 판매하게 되므로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다 같이 재미 보는 사업이 되므로 양쪽에서 허구한 거짓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을 합리화 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지명도 있는 교수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나 약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교수를 이용하여 매스컴을 타게 만들면 좋은 것(국내산 꽃가루)도 죽일 수 있고 나쁜 것도 최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1992년 9월호 '양봉계'에 투고)

프로폴리스가 5년 앞에는 건강식품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어쨌든 일본에는 93년부터 프로폴리스 붐이 일기 시작하였다. 94년도 프로폴리스 단일 품목의 매출액이 200억엔(1천 6백억원)에도 달하는 급성장을 이룩했다. 우리 나라에서 수입되고 있는 국가 수만도 10여 개국에 이르고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단체도 있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합법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롯데제과에서는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특히 제품으로 「제로껌」을 내놓았기 때문에 프로폴리스에 대한 인식도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호에 계속-